

억겁의 시간 속 땅의 숨결을 느끼다

●다큐멘터리 사진가 김덕일 '사라진 숲은 어디로 갔을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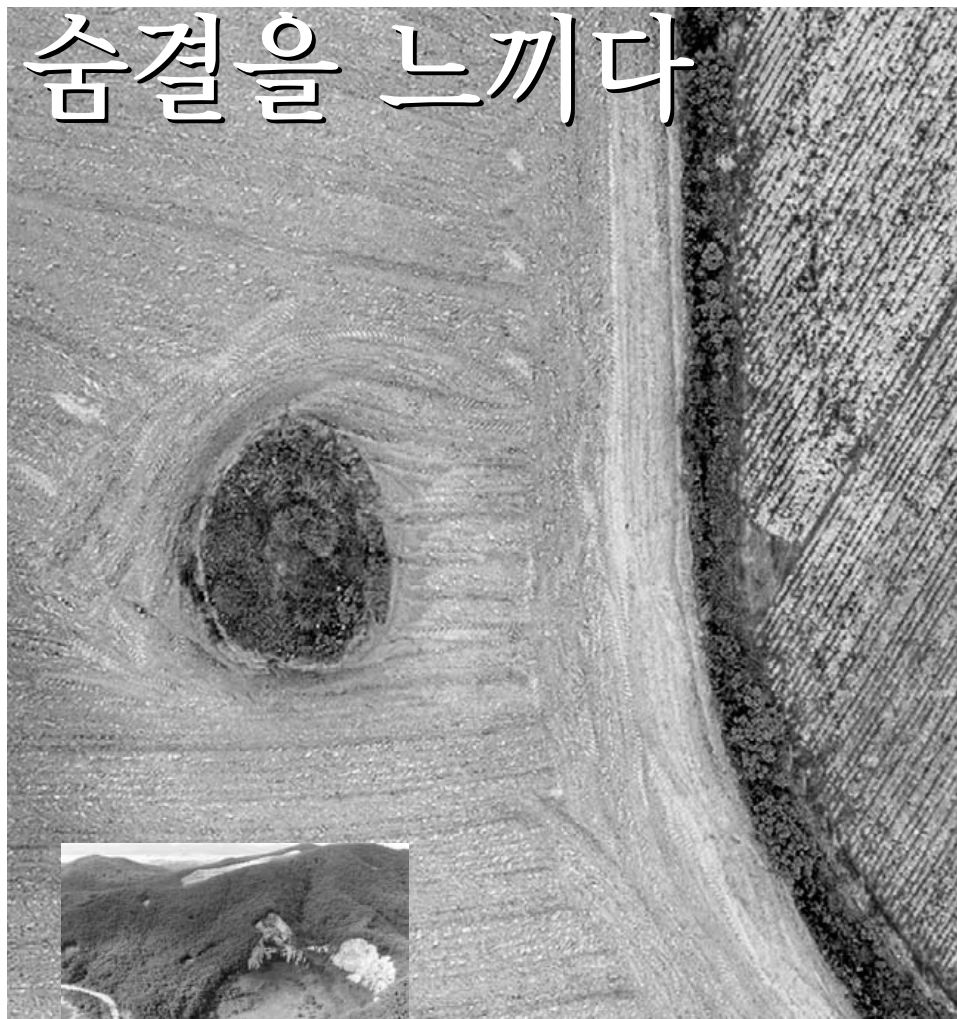
고창의 붉은 황토 위 인간이 그려낸 시간의 선과 터무늬, 험벗겨진 채 속살과 생채기를 남기며 모래와 골재로 자신을 내어준 산, 어느 순간 훼손돼 상처받은 숲까지. 무분별한 개발과 경작에도 숲은 억겁의 시간을 줄곧 버텨내며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과 숲 공간을 5년간 살피고 기록한 사진집이 발간됐다.



사진으로 담아낸 숲의 언어... 자연의 훼손·치유 과정 등 기록

다큐멘터리 사진가이자 광주 송덕고 지리 교사인 김덕일의 다큐 사진집 '사라진 숲은 어디로 갔을까' (상상창작소 펴냄)이다. '하늘에서 본 우리 땅과 숲은 어떤 모습일까', '오랜 시간을 지나며 사라진 숲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기록한 이 책에는 수많은 시간 개간과 경작, 개발로 인해 사라져버린 숲의 모습과 치유가 담겨있다. 사라져 가는 숲과 나무, 그리고 그 속에 남아 있는 땅의 숨결과 경계에 선 우리의 오늘을 만나볼 수 있는 책이다. 책은 크게 3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마주하는 숲'에서는 삶과 죽음의 공간, 옛 사람들과 현대 사람들의 터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시간의 공간을 통해 우리 일부였고 함께 누리고 살아왔던 터전으로서 숲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되묻는다.

'훼손된 숲'에서는 경작과 훼손으로 인간의 손길이 닿아 변해가는 땅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숲이 사라졌다'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인간의 구조물과 산세의 흐트러진 모습을 통해 훼손된 자연과 그 치유의 모습을 담았다. 사진 옆에는 간간히 숲과 자연에 대해 사유해온 저자의 생각들이 글로 표현돼 있다. "살아 있는 것과 죽은 것의 공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공간. 과거와 미래의 공간. 하늘과 땅의 공간. 선주민과 미래 주민의 공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공간. 가시적이지만 비가시적인 세계. 그래서 한쪽을 더 자세히 마주할 수 있는 공간. - 마주하는 숲" 그는 스스로 치유하는 자연의 모습과 그 속에서 다시 희망을 꽃피우며 우리에게 숲을 되돌려주고자 하는 자연의 노력을 간절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한다. 저자 김덕일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붉은



황토밭으로 변하고 있는 숲, 그 숲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은 일만년 숲을 찾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차로 이동해야 한다"며 "그동안 살피고 기록한 언

어를 다듬어 부족하지만 사진집으로 내놓고 독자에게 말을 건네고 싶었다"고 밝혔다. 추천사를 쓴 신남영 시인은 "그동안 그의 사진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말걸기'가 하나의 구심력 있는 공간으로부터 이제 큰 파문을 그리며 사진의 본질을 세삼 생각하게 해준다"며 "김덕일의 사진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여주며 가시적인 것을 통해 기묘의 상징성을 그려보게 한다"고 평했다. /최영진기자

새로 나온 책



▲수류화개=김봉규 저자 30여년 문화부 전문 기자로 일한 저자는 전국 산하를 누비며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찾아가 소개하고, 초목 뒤에 얽힌 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온 사람의 혼을 빼앗을 듯 불타오르는 천주산 진달래 군락지부터 노란 구름이 몽게몽게 피어오르는 뚝탄성이 절로 나오는 반계리 은행나무까지, 저자의 발길을 따라 울긋불긋 산하를 물들이는 꽃과 나무를 접하다 보면 독자들도 자연스레 그곳에 찾아가고픈 충동에 빠져든다. 또한 저자가 들려주는 꽃과 나무에 대한 다양한 생태학 정보와 옛이야기를 통해 흥미로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도 함께 배울 수 있다. /수류책방·1만6천800원



▲만질 수 있는 생각=이수지 저자 2022년 한국인 최초로 아동문학상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그래픽 작가 이수지의 에세이 '만질 수 있는 생각'이 출간됐다. 회화 전공자에서 북아트를 공부한 학생, 그리고 세계적인 그래픽 작가가 되기까지 치열하고 총총한 창작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4부로 구성된 이야기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작업하고 또 도전하는 이수지의 초창기 작업 노트, 엄마가 돼 아이들과 씨름하며 보냈던 순간들, 외국 편집자와 일했던 다양한 일화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수락 연설문까지 다채롭고도 솔직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비룡소·2만5천원



▲생각의 배신=배준민 저자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눈에 빠진 것처럼 헤어지기 어렵다. 하나의 패턴이 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도대체 왜 생각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빠지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울과 불안 증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오랜 임상 경험과 뇌과학 연구 등을 바탕으로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반복되는 생각이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를 일으키는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우울과 불안을 줄이고 행복감을 키우는지 알려준다. /서사원·1만7천500원



▲앗! 깜짝이야! 버스=안영은 글, 안효진 글·그림 우주선 고장으로 지구에 뚝 떨어진 아찔한 깜짝이야 별외계인. 막달려오는 유치원 통학 버스를 노란 괴물로 착각해 몰래 숨어 타게 된다. 버스를 타려고 우루루 몰려가 투닥거리는 해님 유치원 아이들. 버스에 앉아 안전벨트를 안 매거나 장난을 치고, 창밖으로 손을 내밀기까지 한다. 이 모습을 본 외계인들은 '앗! 깜짝이야! 위험해!'를 연발한다. 이 책을 읽으면 유치원생이나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버스에 타기 전, 버스에 탔을 때, 버스에서 내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제재의술·1만4천800원



국내 작가 24인 문학답사기 '전라도 가는 길'

자연경관·문화유산 등 소개

전남도는 14일 "문학인의 글을 통한 전남 관광 홍보를 위해 문학답사기 '전라도 가는 길, 생명의 땅 남도기행'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전라도 가는 길'은 시인, 소설가, 문학평론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인 24인



이 전남 22개 시·군을 둘러보며 느낀 점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문학인 시선을 통해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전남 사람의 인간애를 만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참여 작가는 ▲시인 고재종(곡성), 객재

구(순천), 김구술(무안), 나희덕(고흥), 문효치(영암), 송소영(장흥), 신달자(강진), 오세영(장성), 유자호(구례), 이경정(함평), 이승하(진도), 장석주(해남), 최문자(광양), 허영자(완도), 허형만(목포), 홍신선(신안) ▲소설가 박병두(서문), 권지혜(여수), 박상우(나주), 전경린(영광), 정찬주(화순) ▲문학평론가 이경철(담양), 박

해현(보성) ▲예술인 박명성(전국체전)이다. 특히 작가에게 끌려가듯 따라가는 여행이 아닌 작가의 시선을 통해 보고 발걸음을 함께하며 남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전라도 가는 길'을 기획한 박병두 작가는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이곳저곳을 헤매기 좋은 곳이 전남"이라며 "곳곳에 산과 외딴섬이 즐비한 전남의 풍경은 여행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찾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